

“본래면목과 無字眞經을 깨쳐야 하느니라”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46) 삼귀수행(三歸修行)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화취정(三化聚頂)이 되어야 하고 그 전제조건은 삼염(三厭)을 제정(除淨)하는 것이라는 스승의 설법에 해가는 귀가 번쩍 열렸다. 무릎을 세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었으나 경의를 표했다.

“스승님이시여, 미혹한 제자는 삼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나이다. 부디 가르침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달마는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우선 염(厭)이라는 글자의 뜻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이 글자는 옛날 배달의 성인(聖人) 창힐(倉吉)이 창조한 표의문자 곧 한자의 하나인데 ‘염’이란 글자꼴의 한 가운데 해(日)를 놓고 그 주변을 사음(四陰)으로 감싸 만든 글자이니라. ‘염’에서 위로 비친 ‘一’은 음이고 해(日) 밑에 놓은 달(月)도 음이며 왼편에 빠진 ‘丨’도 음이요. 바른쪽의 개(犬)도 음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개는 천구(天狗)이니 해와 달을 먹어 버리느니라.”

삼염은 삼화를 해치고

이른바 삼염(三厭)은 삼화(三化)를 해치는 것이므로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대개 삼염에는 세 부류가 있으니 하늘을 가로질러 나는 새는 천염(天厭)이요, 땅을 가로질러 달리는 짐승은 지염(地厭)이요, 물 속을 가로질러 헤엄치는 고기는 수염(水厭)이라고 하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순양체(純陽體)를 닦아야 하므로 음기(陰氣)를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우리가 먹는 오곡(五穀)은 땅에서 하늘로 몸을 곧고 길게 뻗으니 순양체이니라. 그러나 삼염은 변환체(變幻體)에 속하니 그것은 먹는 것조차 비참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삼화’를 완공해 두고 삼귀(三歸)를 바로 지켜야 비로소 진전(眞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지이다.”

해가는 고개를 들어 우러러 달마 조사에게 물었다.

“어리석은 제자는 삼귀의 이치에 대해 대강은 아으나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자세한 가르침을 원하옵니다.”

달마는 계승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부처님께 귀의하려면 자비를 일으키고 늘 경정해야 하느니라. 원저 본래의 면목(面目)과 무자진경(無字眞經)을 깨쳐야 하느니라.”

니라. 부귀(富貴)와 세속에 물든 풍조를 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은혜(恩)와 사랑(愛) 같은 세속 흥진(興塵)의 미정(美情)에 연연해서는 안 되느니라. 주색(酒色)과 재기(財氣)를 한칼로 베어 버리고 대장부답게 티끌 같은 세상을 박차고 뛰어넘을지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대항하지 말고 염불하며 마음을 잡을지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입으로 대거리하지 말고 허허 웃어 넘길지이다. 남이 나를 해칠지라도 법연하게 경의(敬意)를 표하고, 나를 질투할지라도 그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지이다. 나를 비방하더라도 좋은 말로 그를 상대하고 나를 기피하고 싫어하면, 그럴수록 그에게 존경의 뜻을 표할지이다. 사람을 만나면 좋은 말로 정성껏 가르

혀(處)로 돌아가고(廻) 허가 무(無)로 돌아가면 성공(成功) 영통(靈通)이 이루어지리라. 진(眞) 가운데 가(假)가 있고 ‘가’ 가운데 ‘진’이 있으니 진여(眞如)가 스스로 정(靜)을 찾으면 비로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느니라. 이것이 곧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임을 그대는 알지이다.”

법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달마는 숨을 돌리면서 잠시 말을 멈췄다. 해가는 스승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스승님, 법(法)에 귀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흥기(1936~) 작 달마도(종이에 담채).

여 기한(剋害)을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꾸어준 돈이 회수되지 않을까 걱정을 일삼느니라. 날마다 밤늦게까지 바빠 돌아 안장이 없으니, 늙은이나 젊은이,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구나. 매일 애써 일해도 마음이 불안한 수행을 하려 해도 되지 않고 좌선과 염불도 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참으로 명칭하여 짐승(畜生)의 범(凡)나 진배(眞) 없느니라. 기왕에 습(濕)한 곳을 싫어했거늘 낮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까닭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더냐. 귀의승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어찌 은연에 연연하고 집과 재물을 탐하는고. 귀의승을 논(論)하는 처지라면 티끌 속에 있더라도 마음 티끌 속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속세에 살더라도 세속에 때를 맞지 않아야 하느니라. 온종일 바쁘더라도 틀을 내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고요(靜)를 구하면 몸은 비록 속세에 있을지

부귀와 세속의 풍조 결코 탐하지 말고 남이 나를 해칠지라도 법연하게 경의 표하라

쳐 주도록 하여라.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을 가려서 알맞게 가르쳐야 하며 기회를 보아 정가지도 베풀도록 하여라.

고선불(古仙佛)이 동(動)과 정(靜)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항상 살펴 연구할지이다. 부처님의 행실을 배우지 않고 어찌 삶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 부처, 부처 하지만 부처님은 원래 속세인연을 완전히 버린 분이시니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나 흙으로 빚은 유상(有像) 유형(有形)의 불상은 아니니라. 형상(形像)있는 것은 곧 후천(後天)의 것으로 인연(因緣)은 부처져 없어질 것이니, 무위(無爲)의 본체(本體)와 태허(太虛)에 부합하지 않고선 생사를 벗어날 수 없느니라.

행주좌와(行住坐臥) 곧 행하고, 서고, 앉고, 누워서 선을 닦을 때 한시도 현관을 떠나서는 안 되느니라. 관자재(觀自在)로 행심(行深)하여 반야(般若)를 이루면 법륜(法輪)이 돌게 되느니라. 정(靜)은 기(氣)로 화(化)하고 기는 신(神)으로 화(化)하니, 그 묘의(妙意)는 말로 설명할 수 없도다. 신이

“법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규율을 지키고 법칙을 문란케 해서는 안 되느니라. 불규를 따르고 예의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느니라. 뒷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를 베풀고 규율에 따라 가르쳐야 하며, 아랫사람이 뒷사람에게 간(干)할 때는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느니라.”

뒷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행동하는 동안에는 품격을 세워야 하며 의관(依願)을 단정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한가로운 것이 있을 때도 태산처럼 좌정하여 황정(黃庭)을 지켜야 하느니라. 신상(神像)을 깨끗하게 해야 모든 부처님이 즐거이 거중하시느니라. 자묘유우(子卯午酉)의 사시(四時)에 향(香)을 정성껏 올려야 본성과 신명이 통하느니라. 진경(眞經)을 외우며 잡념을 없애면 신기(神氣)와 함께 있게 되느니라. 현량(賢良)을 모아 법을 설하고 제도하면 마음에 절로 지혜가 생기느니라. 도반(道伴)을 만나면 겸손과 화기(和氣)로

대하고 예의를 다하여 공경할지이다. 마음을 낮추고 기를 낮추어 스스로 아랫사람으로 자처해야 하느니라.

도를 말할 때 함부로 웃지 말고 다루지도 말지이다. 선천(先天)의 도리는 무궁하여 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얕은 것도 있느니라. 교만한 마음, 거저으로 가득 찬 마음은 모조리 없애야 하고, 간사한 마음, 탐욕스런 마음, 삿된 마음은 먼 하늘 구름 밖으로 던져버릴지이다. 인색한 마음, 각박한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 버리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조금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명리(名利)의 마음, 은애(恩愛)의 마음은 티끌만치도 쌓아두서는 안 되며, 주색(酒色)의 마음, 재기(財氣)의 마음은 모조리 뿌리부터 제거해야 하느니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데도 주저하지 말지이다. 마음을 함에 있어 인상, 아상을 없애면 천하의 제일인자가 되느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철같은 마음으로 수행하여 무리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많은 법칙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인(聖人)이 되는 심전(心傳)의 법은 분명히 밝혀 가르쳐 주리라. 신법(神法)이라고 하지만 우레를 부르고 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비와 바람을 불러 장수와 병졸로 삼는 술법은 더더욱 아니니라. 법이라 하는 법은 본래가 무법(無法)의 법이니 그 법은 곧 자성(自性)이니라. 공(空)이라 하는 공은 공으로 떨어지는 공이니 그 공은 진공(真空)이니라. 단(丹)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죽이고 진식(眞識)의 숨고

르기를 해야 하느니라. 이때 자귀와 오(午) 곧 아랫배 하단전(下丹田)과 머릿골 정수리는 아래위로 대칭을 이루고 기의 흐름은 등골로 상승하고 몸통 앞쪽으로 하강하느니라. 이것을 일컬어 남(南)을 수(水)에 던지고 감괘(坎卦)와 이괘(離卦)가 교합하고 금목(金木)이 병합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리하여 삼화(三化)가 모이고 오기(五氣)가 양육되느니라. 짧았던 구슬이 결성되면 범속(凡俗)을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니, 진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근심과 놀라움이 없어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법(眞法)이니 법에 귀의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이다.”

해가는 앞은 자세를 바로하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스승의 이어지는 강설을 기다렸다.

“귀의승(歸依勝) 곧 승(勝)에 귀의한다는 것은 속세의 정경(情景)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바로하고 뜻에 성의를 담아 수행에 임해야 하느니라. 사나이 대장부로 고뇌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세속의 때를 깨닫고 하리라. 도를 깨달은 사람은 참과 거짓의 길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으니, 시(時)와 비(非), 사(邪)와 정(正), 호(好)와 오(惡)를 스스로 밝힐지이다.”

근기없는 사람은 불법을 받아도 마음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도를 만나도 뜻이 한결같지 않아 허명(虛名)만 추구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익을 생각하여 돈벌이에 아귀다툼을 하고, 생활의 편안함을 생각하

라도 마음은 하늘 가운데 있으니, 조금도 속정(俗情)이 없으리라. 승과 속의 두 갈래 길은 경계가 분명히 있으니 청(淸)과 탁(濁)을 구분하지 않고 어찌 공(功)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으리. 그대에게 특별히 당부하노니 속히 밝게 깨달아 회광반조(回光返照)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볼지이다. 어떻게 하면 고해(苦海)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찾아볼지이다.

스승의 이어지는 강설

내공(內功)으로 논(論)하면 중(中)이란 곧 진인(眞人)을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애써 참선하여 깨달음을 구할지이다. 그리하면 부처님의 묘음(妙音)을 반드시 얻어서 알게 될 것이니라. 호흡을 운용하여 진식(眞息)을 가다듬고 고르면 현(玄)에서 나와 빈(北)으로 들어가리라. 갈루수(甘露水)가 온몸에 감돌고 단약(丹藥)이 움직여 삼관(三關)을 통과하고 오원(五元)에 이르리라. 황과(黃蘗)의 종매로 영아(嬰兒)와 타녀(女)가 혼인을 하게 되리니, 그 면밀한 묘(妙)는 말로 다할 수 없고 그 낙(樂)의 경계는 끝이 없으리라. 한 톨의 쫄쫄알이 구곡주(九曲珠)를 맺으니 빛줄기가 머리 위로 등등하게 솟아오르는구나. 삼귀수행(三歸修行)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 반드시 밟아서 지킬지이다. 진정으로 삼보(三寶)를 한 묶음으로 닦아서 ‘하나(一)’의 금단(金丹)을 이루도록 할지이다.”

달마의 진법 강설은 하늘과 땅에 가득히 퍼져 나갔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지리란?
심층적인 이론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술이다. 명나라 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관,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 양(+의) 전하(electric charge)를 발생한다. 이 +, -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될 때에는 특별한 지기가 발생하는데, 이 지기가 생기(生氣)이며, 이곳이 바로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에서-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합금된 센서를 장착하고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형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변성해온 사찰의 대응선,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민생한 기운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불연속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께서는 「월간역학」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택담자본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 저널호(창간호-2001년 8월호)를 88만원에 판매하며, 단,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월간역학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한국서적진흥원 발행)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청옥빌딩 101호

명당 탐지기 - 관룡자

9월 15일(토) 충남 예산의 명당 풍수건축, 화비 2만원(교통편, 중식포함)



-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공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적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부터 주간지인 「월간역학」을 발행합니다.
-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2월호에는 「명당탐지기」, 3월호에는 「월간역학」, 4월호에는 「관공학」, 5월호에는 「관공학」, 6월호에는 「관공학」, 7월호에는 「관공학」, 8월호에는 「관공학」, 9월호에는 「관공학」을 실었습니다.